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3. 5. 22.(월) 06:00 ~ 23:00
- 상담건수¹⁾: 649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출연자 호평

-프로그램명 :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

-방송일시 : 2023. 5. 22.(월) 1R (07:20-08:57)

‘최강 인터뷰’ 코너에 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해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. 청취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완벽하게 정리해주어 매우 유익했다. 앞으로도 해당 방송에 자주 출연해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.

○ 출연자 발언 제언(4명)

-프로그램명 : 「역사저널 그날」 ‘88서울 올림픽 유치 - 전두환, 정주영에게 SOS를 하다’

-방송일시 : 2023. 5. 21.(일) 1TV (21:40-22:30)

해당 방송을 즐겨 시청한다. 이날 88 서울 올림픽 유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. 전두환·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출연자들이 이름으로만 언급해 듣기 불편했다.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인물들인데 올바른 존칭을 써주었으면 한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없음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649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379	30	-	-	240	649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319	184	25	-	-	121	649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69	480	-	649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470	2	81	96	649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홍김동전」 - 편성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이슈 픽 쌤과 함께」 - 자료화면 제언 ○ 「역사저널 그날」 - 출연자 발언 제언 ○ 「아침마당」 - 출연자 섭외 제언 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- 방송 제언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걸어서 환장 속으로」 - 방송 제언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 - 출연자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곰취’ 연락처 문의 31건 ○ 「아침마당」 - ‘출연자 섭외 제언’ 24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텍사스바비큐’ 연락처 문의 14건 ○ 「열린음악회」 - ‘방청’ 문의 11건 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- ‘출연자’ 연락처 문의 9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2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54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4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2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9건 ○ 「주차」 문의 1건 외 1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96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편성 제언	<p>○ 「홍김동전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목) (20:30-21:50) -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층은 2030 세대이다. 그런데 목요일 저녁 8시 30분이라는 애매한 시간대에 방송되다보니, 정작 주요 시청층은 본방송으로 시청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OTT 등으로 다시보기를 할 수 밖에 없다. 시청률을 위해 평일 늦은 시간대 혹은 주말 저녁으로 편성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지**</p>
[시사 · 교양]	
자료화면 제언	<p>○ 「이슈 픽 쌤과 함께」 「미국의 친구들은 왜 중국으로 가나?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5. 21.(일) 1TV (19:10-20:10) - 안병익 대구대 군사학과 교수가 ‘미국의 친구들은 왜 중국으로 가나?’라는 주제로 강연했다. 방송 중반 중국 지도를 보여줄 때 타이완(대만)이 포함된 지도를 보여줬다. 타이완(대만)은 현재 중국 땅이 아니다. 제작진에게 의견이 전달되길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출연자 발언 제언	<p>○ 「역사저널 그날」 ‘88서울 올림픽 유치 - 전두환, 정주영에게 SOS를 하다’(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5. 21.(일) 1TV (21:40-22:30) - 해당 방송을 즐겨 시청한다. 이날 88 서울 올림픽 유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. 전두환·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출연자들이 이름으로만 언급해 듣기 불편했다.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인물들인데 올바른 존칭을 써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출연자 섭외 제언	<p>○ 「아침마당」 (3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5. 22.(월) 1TV (08:25-09:30) - 월요일마다 국악인 남상일 씨가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. 남상일 씨가 KBS 프로그램들에 너무 빈번하게 출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특별히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고, 해당 프로그램이 남상일 씨 개인 방송도 아닌데 KBS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는 게 시청자로서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. 경력이 있는 방송인으로 교체해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방송 제언	<p>○ 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‘약(藥)! 무엇이든 물어보세요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5. 22.(월) 1TV (10:00-11:00) - 약에 대한 궁금증부터, 약효 높이는 복용법까지 다뤘다.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이기에 열심히 시청했다.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여러 약을 중복해서 먹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, 각각의 사례에 대해 제보 받는 시간을 두고 특이점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었더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[연예·오락]	
방송 제언	<p>○ 「걸어서 환장 속으로」 ‘남해 독일마을을 방문한 광산 김씨 패밀리!’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5. 21.(일) 2TV (21:25-22:55) - 김승현 씨 가족이 남해 독일마을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에서 특정인의 일가족이 놀러 다니는 모습을 왜 보여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. 또한 김승현의 어머니 백옥자 씨가 남편 김연중 씨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도 보기 안 좋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라디오]	
출연자 호평	<p>○ 「최경영의 최강시사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. 5. 22.(월) 1R (07:20-08:57) - ‘최강 인터뷰’ 코너에 홍현익 前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해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. 청취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완벽하게 정리해주어 매우 유익했다. 앞으로도 해당 방송에 자주 출연해 청취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